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요즘 이스라엘 날씨는 예루살렘의 경우 보통 한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들고 있고 남부지역은 이보다 더한 4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치솟는 온도이지만 구름기둥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많지만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조해서 그늘에만 있으면 무더위가 가시고 거기에 또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금세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기온은 높아도 훨씬 더 여름 나기가 수월합니다. 강렬한 햇빛 덕분에 가족들의 피부색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 여름 가족들의 표정은 밝고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장마와 더불어 찾아올 본격적인 무더위가 고국 땅을 찾겠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이 여름을 뚝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라마단 카림 (Ramadan Kareem)

이스라엘은 지금 무슬림들의 라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마단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라마단 카림’ (Ramadan Kareem)이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카림’이란 의미는 ‘은혜’ (Grace)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로운 라마단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팽팽한 긴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마단이 시작되었을 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청년 2명이 유대인으로 변장하고 텔아비브의 한 공공장소에서 총기난사를 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었습니다. 이에 더해 계속되는 테러에 대한 위협과 경고의 발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인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의 3대 성지인 황금돔을 찾는 많은 순례객들은 물론 팔레스타인 마을들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양 예수의 피가 다시금 이 땅 구석구석 뿌려져 죽음의 그림자는 지나가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사라져 새로운 ‘샬롬(shalom)’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G.T.I(Gospel Trail in Israel) 사역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은 혼자가 아닌 둘이라서 G.T.I 사역이 더 즐겁고 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이 땅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랍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다 보니 G.T.I 사역에는 히브리어와 아랍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참으로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히브리어와 러시아어가 가능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또다른 누군가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보니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은 G.T.I 사역을 통해 찾을 기회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지역들은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방학을 맞아 7월 중에 북부지역으로 2박 3일간 전도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중 가장 무더운 기간이 될 텐데 특별히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행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길을 나서지 않을 때는 잘 몰라도 일단 길을 나서보면 보이는 땅, 가야할 마을들이 얼마나 그리도 많은지..., 이 길 위에서 앞으로도 멈춰선 발걸음 없이 계속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더욱 열심을 가져봅니다.

■ 베두원 마을 이야기

베두원 마을 사람들도 라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먹을 것도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아이들은 낮에는 보통 낮잠을 잡니다. 그래야 허기를 잊을 수 있으니까요. 매년 라마단을 이들과 함께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자유와 은혜가 하루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열악한 베두원들은 아파도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그냥 견뎌냅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뭐든 해보려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나타나게 될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 가운데 깨닫게 되는 또하나의 음성은 “능력보다 앞선 긍휼(사랑)의 마음이 네게 있는가?”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영역, 그저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물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흠스쿨 패밀리



지금은 라마단



세상을 넓고 갈 곳은 많다.



G.T.I 만남



신유(神癒)의 은사보다 사랑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7월에 있을 북부지역 G.T.I 전도 여행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2. 베두원 마을 철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도움이 마련되도록
3.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원 마을이 복음화 되도록
4.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도록
5. 무더운 날씨에 가족 모두의 건강(다비드의 허리&어깨, 담희의 비염) 지켜주시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운)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